

# 지역발전·정권교체·야권개혁... “내가 책임자”

■ 광주 서구를 보선 각 후보 홍보 현수막에 담긴 뜻

**정승 “광주발전, 딱 1년만 써 보십시오”**

**조영택 “하나 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전정배 “서구의 힘, 호남과 야권 살립시다”**

4·29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6일 각 후보들은 주요 길목에 후보 현수막을 내걸고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다.

각 후보들은 유권자들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현수막에 자신들의 선거 슬로건을 내걸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후보들의 선거 현수막은 자신들의 주장을 함축적으로 담아내 유권자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새누리당 정승 후보는 ‘광주 발전 딱 1년만 써보십시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번 선거가 보궐선거로,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는 만큼 야당 심장부인 광주에서 1년만이라도 여당 후보를 뽑아 광주발전을 앞당겨보자는 뜻을 담고 있다. 특히 정 후보는 ‘청년 일자리 창출 1등 세일즈맨’, ‘예산 불독’이라는 수식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호남 예산 소외 등을 막을 수 있는 힘있는 여당 후보를 믿어달라는 뜻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후보는 ‘하나 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정권교체·광주의 선택’을 내걸었다.

정권교체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민과 대안 세력인 제1야당이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으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성완중 리스트’ ‘세월호 참사 1주기’ 등 박근혜 정부의 부패와 실정이 극한에 이른 현 상황에서 야권의 분열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도 담고 있다.

아울러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정배 후보로의 이탈표 방지를 위한 뜻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강은미 후보는 ‘광주가 키운 지역 일꾼’ ‘어린이 청소년 교육문화공간 확대’ 등을 적었다.

시의원과 구의원 등 오랜 지역구 활동을 통해 지역 사랑을 가장 잘 안다는 점과 지역일꾼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소속 조남일 후보는 ‘서민가슴 뺨 뚫리게 노동자로 일합니다’로 노동조합장 출신답게 노동계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현수막 색깔도 옛 통합진보당이 사용했던 보라색으로 옛 통합당 이미지를 강조했다.

무소속 전정배 후보는 ‘서구민의 힘, 호남과 야권을 살립시다’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전 후보의 출마의 변이자 탈당의 이유이기도 한 야권과 호남정치를 개혁해 정권교체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서구민이 이번 선거에서 힘을 모아달라는 절박한 호소가 담겨있다.

전 후보는 이번 보선을 통해 서구에서 야권과 호남정치를 재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광주 서구를 선거구는 풍암, 상무2동 등 7개 동으로 후보자는 동마다 1장씩 모두 7장의 현수막을 내걸 수 있다. 내용 교체에는 제한이 없으나 제작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에 포함되는 만큼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선거테마 사진전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9일 실시되는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16일 광주지하철 상무역 광장에 보궐선거 홍보관 운영을 비롯한 선거테마 사진전을 열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세월호 온전한 선체 인양” 국회 본회의 결의안 채택

여야 의원들 일제히 기립 희생자 추모 묵념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은 16일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추모 행렬에 동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고, 여야 의원 전원은 본회의를 시작하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전원 자리에서 기립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에서 열린 현장선거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묵념한 뒤 “정부와 국민 모두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안전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챙길 때 이 땅에 다시는 세월호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경기도 안산 합동 분향소를 찾았으나 유가족들의 반대로 조문을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세월호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하기 위해 진도 팽목항을 찾았지만, 일부 참석자들의 항의를 받아 위령제에는 참석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린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소속 의원 110여명이 안산 합동분향소를 방문했다. 문 대표는 희생자 영정에 헌화하고 묵념한 뒤 인근의 경기도미술관으로 자리를 옮겨 추모사를 했다.

문 대표는 추모사에서 “돈보다 사람의 가치를 더 앞세우고 국민 안전과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안전한 나라만이 국민의 행복한 일상을 지켜줄 수 있다”며 “우리는 세월호를 더 오래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범국민추모제에도 개인 자격으로 대거 참석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광주시청에 마련된 세월호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오후에는 경기 안산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헌화하고, 저녁엔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추모제에도 참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野 “총리사퇴 언급없는 면피용”

박대통령, 김무성 대표 긴급회동 비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긴급 회동과 관련해 “국민은 이완구 국무총리의 즉각 사퇴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대통령의 도피성 해의 출장을 앞둔 면피용 회동”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무성 대표는 가감 없이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성난 민심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특히 해의 순방 후 결정하겠다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모르는 안이한 시각”이라며 “시간끌기 회동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조용히 있으라’는 지침을 내린 것 같다”며 “이 총리 때문에 지금 나라가 대망이다. 왜 대통령만 귀를 막고 눈을 막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집 비둘테니 잘 하라는 것이지, 새로운게 뭐가 있느냐”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이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한 것을 두고도 새정치연합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野, 대정부질문 마지막날까지 “이완구 사퇴” 십자포화

‘성완중 리스트’ 관련 ‘금품수수 의혹’·‘거짓말 논란’ 집중 추궁

16일 열린 마지막 국회 대정부질문까지 ‘성완중 리스트’ 공방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동안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정책 현안 질의는 사실상 실종됐다.

이날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당시 성 전 회장과 이 총리의 독대사실을 운전기사가 구제적으로 증언한 보도가 나왔다. 그걸 부정하는가”라고 물었고, 이 총리는 “저는 기억 못한다”고 부인

했다.

같은 당 유대운 의원은 “(이 총리의) 답변을 보면 증거 될 만한 내용이 나오면 말을 자주 바꾼다”고 지적했고, 이 총리는 “짧은 시간 내 답변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큰 틀에서 거짓말은 없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이미 국민은 총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사퇴를 거듭 주장했지만 이 총리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 우선”이

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이 총리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으로 인한 국정운영 공백에 대한 우려에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야당 의원들이 이 총리와 성완중 리스트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동안, 새누리당 의원들은 제2 세월호 방지대책 등을 따지며 정책질의에 역점을 뒀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이 총리에게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안전대책 보안을 주문했다.

같은 당 안호대 의원이 “이 총리가 최근 일련의 사태를 계속 부정하는데 국민은 사실과 인식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사실과 인식의 차이라는 점에 공감한다”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장관은 “이 총리는 수사에 대해 관여할 수 없고, 관여받지도 않을 것”이라며 공정한 수사 지휘 의지를 거듭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북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